



우리나라 부부의 이혼은 1970년에 12,000여 건에서 30년 후인 1999년에는 10배 정도인 118,000여 건으로 증가하였다. 결혼 대 이혼비율은 32.5%로서 결혼한 부부 3쌍 중 1쌍이 이혼을 하고 있으며 이들 이혼 부부의 절반은 결혼 10년 내에 결별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 결혼 10년 이내에 파경을 맞는 조기 이혼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결혼 15년 이상의 부부들의 이혼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혼 사유로서 부부 갈등은 76.9%로 경제적인 문제, 가족간 불화나 건강문제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1999). 부부의 갈등문제는 자녀에게까지 전이되어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특성이 있어 가족관계에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듯 부부의 갈등문제는 부부의 이혼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족과 사회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부부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이나 사회적인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연구자들(제석봉, 1996; Coleman, 1984; Giffin & Patton, 1976; Jourad, 1968)은 부부의 갈등 해결에 있어서 부부의 상호 자기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에 근거하여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개발되어 실시되었던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부부관계의 의사소통 향상에 중점을 두어왔다(권정혜와 채규만, 2000; 유승하, 1996; 정석희, 1992; 조선경, 1990; Bruder, 1972; Gordon, Baucom, Epstein, Barnett, Rankin, 1999; Gurman & Kriskern, 1977; Joanning, 1982; Latham, 1979; Miller, Nunnally, Wackman, Ferris, 1976; Nadeau, 1976; Rappaport, 1976). 그러나 그 효과에 있어서 일관성이 부족하였다.

Wampler(1982)는 의사소통 기술의 향상에 목표

를 두는 미네소타 부부의사소통 프로그램(Minnesota Couple Communication Program: CCP)을 수행한 19개의 연구 결과를 분석한 결과, CCP는 의사소통과 부부적응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자기존중감이나 자기노출 수준에는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Wampler는 추수검사에서 CCP의 긍정적인 효과가 지속된 연구는 일부에 지나지 않고, 또한 이들 연구 중 그 지속효과도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CCP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부 프로그램에 특수한 요소를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Joanning(1982)은 CCP의 장기효과를 확인한 결과 CCP 종료 5개월 후의 추수검사에서 의사소통은 CCP 종료 시의 수준이 유지되었으나 부부적응은 CCP 실행 전의 수준으로 되돌아갔음을 보고하였다. 그는 의사소통 증진을 위주로 하는 CCP가 부부적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에는 충분치 못하며 의사소통 이외의 다른 요인이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부부적응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프로그램에 인지적 요소와 감정표현의 요소를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후에 이루어진 연구들(Bray & Jouriles, 1995; Halford, Sanders, Behrens, 1993)에서는 의사소통 기법에 초점을 맞춘 부부치료 프로그램들의 치료 효과가 단지 50% 정도의 부부에서만 관찰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일부 부부에서 나타난 이러한 치료의 실패는 부부관계에서 의사소통이 비록 중요하기는 하지만 의사소통이 언제나 모든 부부의 부부적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몇몇 연구자들은 의사소통과 함께 부부관계 향상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자기 존중감(self-esteem)을 들고 있다(Glick & Kessler,

1974; Satir, 1967). 가족치료자인 Satir(1967)는 자기 존중감이 결혼과 가족관계를 강화하는 개인의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즉, 낮은 자기존중감을 갖는 개인은 타인이 자신을 생각하는 것에 따라 자신을 인식하게 되어 자신의 자율성과 개성을 무력하게 만들고 두려움과 걱정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능력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Glick과 Kessler(1974)는 부부의 낮은 자기존중감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불러오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또 다시 낮은 자기존중감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그들은 부부 중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가 낮은 자기존중감을 지닐 때 어떠한 자기 희생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 부부 중 한 사람 또는 둘 다 자기존중감이 낮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면 결혼생활은 불만족스럽고 부부간에 부조화가 생겨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부적응에 대한 자기존중감과 의사소통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비교적 드물며, 그 결과도 서로 상반된다. Dillon(1975)의 연구에서는 자기존중감과 의사소통간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부부의 의사소통과 부부적응, 자기존중감과 부부적응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의사소통과 자기존중감이 각각 독립적으로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될 수 있다.

한편 Carter(1980)는 미국의 결혼한 중산층 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에서 부부적응이 결혼한 개인의 자기존중감 수준과 의사소통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그는 부부의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 때 자기존중감 수준 또한 높을 가능성이 있고 부부의 의사소통과 자기존중감의 수준이 높을 때 부부적응 수준이 높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부부적응에 의사소통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지만 부부적응에 의사소통만으로 충족되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루어진 부부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자기존중감의 역할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형편이었으며 문화적인 배경이나 인구통계학적 배경이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의사소통의 향상을 위주로 하는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들의 부부적응 효과는 일관성이 부족한 편이고 효과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프로그램에 새로운 요인을 추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Bray & Jouriles, 1995; Halford et al., 1993; Joanning, 1982). 이러한 점에서 부부적응에서 자기존중감과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증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의사소통 향상을 목표로 해 왔던 기존의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에 부부의 자기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부부적응에 대한 선행연구가 주로 이루어진 서구문명과 다른 우리나라에서 부부의 자기존중감 및 의사소통과 부부적응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고, 부부의 자기존중감이 어떤 역할을 통하여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방 법

### 피험자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00년 11월3일부터 2001년 1월 10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인구통계학적으로 다양한 계층을 조사하기 위하여 주거지역, 나이, 학력 등을 고려하여 서울

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35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자기보고형 설문지(자기존중감 척도, 의사소통 척도, 부부적응 척도)를 배포하여 작성하게 하였다. 회수된 274쌍의 설문지(회수율=78.0%)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응답이 누락된 26쌍을 제외하고 248쌍의 설문지를 최종적으로 분석(71.0%)에 활용하였다.

설문지 작성시 남편용과 아내용의 설문지를 부부가 서로 상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작성하게 하였으며, 동봉한 봉투에 넣어 반송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남편이 평균 41.4(8.5)세, 아내가 평균 38.4(7.9)세이었으며, 학력은 남편의 67.7%와 아내의 48.8%가 대학졸업 이상이었다(부록).

## 측정도구

### 자기존중감 척도

자기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Battl(1992)이 만든 Culture-Free Self-Esteem Inventory 성인용(CFSEI-2)을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는 4개의 하위요인이 있으며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별 문항수는 일반적 자기존중감 16문항, 사회/동료와 관련된 자기존중감 8문항, 개인적 자기존중감 8문항과 타당도 척도 8문항이다. 총점은 피검자의 방어정도를 측정하는 타당도 척도 8문항을 제외하고 0점에서 32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피검자들의 응답방식은 '예' 또는 '아니오'('예': 1점, '아니오': 0점)로 처리하였다. Battl(1992)에 의하면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Cronbach  $\alpha=0.81$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0.78$ 이었다.

### 의사소통 척도

부부의 의사소통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Navran(1967)이 개발한 부부의사소통 검사(Primary Communication Inventory: PCI)를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PCI 의사소통 척도는 25문항의 Likert식 5단계 자기보고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언어적 의사소통 척도 18문항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척도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득점 범위는 25점에서 1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의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 248쌍의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PCI 의사소통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Cronbach  $\alpha=0.89$ 이었다.

### 부부적응 척도

부부간의 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panier (1976)가 개발한 부부적응 척도(Dyadic Adjustment Scale: DAS)를 이민식과 김중술(1996)이 번안한 한국판 DAS를 사용하였다. Spanier의 부부적응 척도는 의견일치도, 부부간의 응집력, 결혼만족도, 애정표현도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Likert 방식으로 문항에 따라 0에서 1, 0에서 4 혹은 0에서 6까지 점수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총 점수의 범위는 0에서 151점이다. 점수가 낮을수록 부부갈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Spanier에 의하여 조사된 DAS의 전체 신뢰도는  $\alpha=0.96$ 이었고, 하위척도별 신뢰도는 의견일치도  $\alpha=0.90$ , 결혼만족도  $\alpha=0.94$ , 부부응집력  $\alpha=0.86$ , 애정표현도  $\alpha=0.73$ 이었다. 한국판 DAS의 내적일치도는  $\alpha=0.76$ 에서  $\alpha=0.95$  사이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었으며, 32개 문항과 전체 척도 및 4개 하위척도에 서 정상집단과 불화집단의 평균 점수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준거관련 타당도가 입증되었다(이민식과 김중술, 1996).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0.93$ 이었다.

**통계학적 분석**

부부의 자기존중감 및 의사소통과 부부적응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존중감 및 의사소통과 부부적응간의 Pearson의 단순상관계수(*r*)를 산출하였으며 중다회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부부의 의사소통과 부부적응 사이의 자기존중감의 매개역할을 조사하기 위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모델이란, 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제삼의 변인이 두 변인의 관계를 매개하는 모델을 말한다(이영호, 1993; Baron & Kenny, 1986). 경로계수는 회귀식에서 얻은 독립변수의 비표준화계수(un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또는 표준화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를 사용할 수 있다. 표준화회귀계수를 경로계수로 사용하면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변수들의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데 유리하다. 그리고 경로계수는 효과계수를 통하여 나타난다. 효과계수는 두 변수간의 인과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두 변수간의 직접효과와 두 변수 사이의 매개변수를 통해서 미치는 간접효과를 합한 것이다. 질차로서 선형회기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의사소통 점수를 자기존중감 점수에 회귀시키고, 다음에 의사소통 점

수에 부부적응 점수를 회귀시켰다. 3단계로 부부적응 점수를 의사소통 점수 및 자기존중감 점수와 매개자에 회귀시켰다.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인 SPSS PC+ 1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부부의 자기존중감, 의사소통, 부부적응 사이의 관계

부부의 자기존중감, 의사소통, 부부적응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부적응과 자기존중감 및 의사소통 간의 단순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서와 같이 남편과 아내의 의사소통과 자기존중감, 자기존중감과 부부적응, 의사소통과 부부적응 사이에는  $p < .01$ 의 유의도 수준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남편의 의사소통과 남편의 부부적응( $r = .64$ ), 남편의 의사소통과 아내의 부부적응( $r = .58$ ), 아내의 의사소통과 아내의 부부적응( $r = .68$ ), 아내의 의사소통과 남편의 부부적응( $r = .57$ )에서도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남편의 자기존중감과 남편의 부부적응( $r = .47$ ), 남편의 자기존중감과 아내의 부부적응( $r =$

표 1. 부부의 의사소통, 자기존중감 및 부부적응 간의 상관계수(*r*)

	남 편			아 내		
	의사소통	자기존중감	부부적응	의사소통	자기존중감	부부적응
(남편) 의사소통	-	.32*	.64*	.74*	.37*	.58*
자기존중감		-	.47*	.26*	.39*	.40*
부부적응			-	.57*	.44*	.79*
(아내) 의사소통				-	.41*	.68*
자기존중감					-	.57*
부부적응						-

\* $p < .01$ .

.40)에서도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고 있으며, 아내의 자기존중감과 아내의 부부적응( $r=.57$ ), 아내의 자기존중감과 남편의 부부적응( $r=.44$ )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남편의 의사소통과 남편의 자기존중감( $r=.32$ ), 남편의 의사소통과 아내의 자기존중감( $r=.37$ ) 사이에도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아내의 의사소통과 아내의 자기존중감( $r=.41$ ), 아내의 의사소통과 남편의 자기존중감( $r=.26$ )에서도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와 같이 자기존중감 및 의사소통과 부부적응 간의 관계에서 독립변인인 자기존중감 및 의사소통과 종속변인인 부부적응간에 상관은 나타났으나, 단순상관계수만으로는 각각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대하여 갖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알아볼 수 없으므로, 자기존중감과 의사소통이 부부적응

에 미치는 독립적이고 종합적인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 및 표 3과 같다.

표 2에서 보듯이 남편의 부부적응에 대한 남편과 아내 각각의 의사소통과 자기존중감의 중다상관은  $R=.72(F4/243=65.28, p<.001)$ 이었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남편의 부부적응에 대한 남편 자신의 의사소통의 Beta값은 .39로 이는 단순상관에서의 결과( $r=.64, p<.01$ )와 일관된 것으로 남편의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남편의 부부적응은 증가함을 의미한다. 남편의 부부적응에 대한 남편 자신의 자기존중감의 Beta값은 .25로 이는 단순상관에서의 결과( $r=.47, p<.01$ )와 일관된 것으로 남편 자신의 자기존중감이 높을수록 남편의 부부적응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남편의 부부적응에 대한 아내의 의사소통의 Beta값은 .16으로 이는

표 2. 남편의 부부적응에 대한 남편과 아내의 의사소통과 자기존중감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요약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t	
남편의 부부적응	남편	의사소통	.57	.39	5.78***
		자기존중감	.87	.25	5.11***
	아내	의사소통	.21	.16	2.33*
		자기존중감	.44	.14	2.71**
	상 수	11.70		2.00*	
$R = .72$		$df = 4/243$	$F = 65.28^{***}$		

\*  $p<.05$ . \*\*  $p<.01$ . \*\*\*  $p<.001$ .

표 3. 아내의 부부적응에 대한 아내와 남편의 의사소통과 자기존중감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요약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t	
아내의 부부적응	남편	의사소통	.14	.09	1.48
		자기존중감	.49	.13	2.93**
	아내	의사소통	.65	.45	7.24***
		자기존중감	1.04	.31	6.44***
	상 수	3.25		.56	
$R = .77$		$df = 4/243$	$F = 86.99^{***}$		

\*\*  $p<.01$ . \*\*\*  $p<.001$ .

단순상관에서의 결과( $r=.57, p<.01$ )와 일관된 것으로 아내의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남편의 부부적응은 증가함을 의미한다. 남편의 부부적응에 대한 아내의 자기존중감의 Beta값은 .14로 이는 단순상관에서의 결과( $r=.44, p<.01$ )와 일관된 것으로 아내의 자기존중감이 높을수록 남편의 부부적응은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의 의사소통 및 자기존중감과 아내의 의사소통 및 자기존중감이 남편의 부부적응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표 3에서 보듯이 아내의 부부적응에 대한 남편과 아내의 의사소통과 자기존중감의 중다상관은  $R=.77(F_{4/243}=86.99, p<.001)$ 이었다. 아내의 부부적응에 대한 아내 자신의 의사소통의 Beta값은 .45로 이는 단순상관에서의 결과( $r=.68, p<.01$ )와 일관된 것으로 아내의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아내의 부부적응은 증가함을 의미한다. 아내의 부부적응에 대한 아내 자신의 자기존중감의 Beta값은 .31로 이는 단순상관에서의 결과( $r=.57, p<.01$ )와 일관된 것으로 아내 자신의 자기존중감이 높을수록 아내의 부부적응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아내의 부부적응에 대한 남편의 자기존중감 Beta값은 .13으로 이는 단순상관에서의 결과( $r=.40, p<.01$ )와 일관된 것으로 남편의 자기존중감이 높을수록 아내의 부부적응은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내의 부부적응에 아내의 의사소통 및 자기존중감과 남편의 자기존중감이 아내의 부부적응에 독립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그러나 아내의 부부적응에 대한 남편의 의사소통의 Beta값은 .0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단순상관의 결과( $r=.58, p<.01$ )에서는 상관이 나타났으나 중다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아내의 부부적응에 남편의 의사소통이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을 말한다.

의사소통과 부부적응에 대한 자기존중감의 역할

부부의 자기존중감이 의사소통과 부부적응의 효과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작용하는 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선형회귀분석한, 남편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표 4, 표 5, 그림 1), 의사소통에서 자기존중감으로 가는 경로( $a2$ )( $\beta=.32$ ), 자기존중감에서 부부적응으로 가는 경로( $a3$ )( $\beta=.30$ )가 유의하여 의사소통과 부부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의사소통에서 부부적응으로 가는 경로( $a1$ )( $\beta=.54$ )도 유의하여 자기존중감이 의사소통과 부부적응 간의 관계를 완전히 매개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의사소통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54이었으며, 의사소통이 자기존중감을 거쳐서 부부적응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10이었다. 따라서 남편의 의사소통과 부부적응의 인과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효과계수는 .64이었다.

표 4. 자기존중감에 대한 의사소통의 선형회귀분석 결과(남편)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T
자기존중감	의사소통	.14	.32	5.29
$R^2 = .10$		$df = 1/246$		$F = 28.03^{***}$

\*\*\*  $p<.001$ .

표 5. 부부적응에 대한 의사소통과 자기존중감의 선형회귀분석 결과(남편)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T
부부적응	의사소통	.79	.54	11.21
	자기존중감	1.02	.30	6.17
$R^2 = .49$		$df = 2/245$		$F = 115.74^{***}$

\*\*\*  $p<.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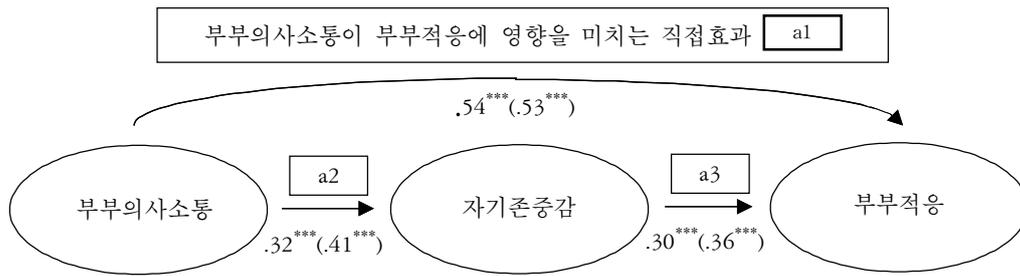


그림 1. 자기존중감의 매개효과: 남편(아내), \*\*\*  $p < .001$ .

아내에서도 남편에서와 마찬가지로(표 6, 표 7, 그림 1) 의사소통에서 자기존중감으로 가는 경로(a2)( $\beta=.41$ ), 자기존중감에서 부부적응으로 가는 경로(a3)( $\beta=.36$ )가 유의하여 의사소통과 부부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의사소통에서 부부적응으로 가는 경로(a1)( $\beta=.53$ )도 유의하여 자기존중감이 의사소통과 부부적응 간의 관계를 완전히 매개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의사소통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53이었으며, 의사소통이 자기존중감을 거쳐서 부부적응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15로서 남편에서보다 아내에서 자기존중감의 간접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아내의 의사소통과 부부적응의 인과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효과계수는 .68이었다. 이상의 결과는 남편과 아내 모두에서 자기존중감이 부부 의사소통과 부부적응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기존중감은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의사소통보다는 크지 않지만 역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6. 자기존중감에 대한 의사소통의 선형회귀분석 결과(아내)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T
자기존중감	의사소통	.17	.41	6.96
$R^2 = .17$		$df = 1/246$	$F = 48.44^{***}$	

\*\*\*  $p < .001$ .

표 7. 부부적응에 대한 의사소통과 자기존중감의 선형회귀분석 결과(아내)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T
부부적응	의사소통	.76	.53	11.59
	자기존중감	1.22	.36	7.79
$R^2 = .57$		$df = 2/245$	$F = 160.64^{***}$	

\*\*\*  $p < .001$ .

## 논 의

지난 수십 년 동안 결혼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수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는 주로 의사소통과 부부적응 사이의 관련성을 평가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 이 두 변인 사이에는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지지하였으며 이제는 관심을 의사소통 기법의 특이성과 정교화에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 기술의 향상에 목표를 두는 Minnesota Couple Communication Program(CCP)을 비롯한 인지행동치료는 의사소통과 부부적응에 긍정적인 즉시 효과가 있었지만 자기존중감이나 자기개방 수준에는 변화를 일으

키지 않았으며 CCP의 긍정적인 효과의 지속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CCP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에 특수한 요소를 포함시킬 필요성이 제안되었다(Bray & Jouriles, 1995; Halford et.al. 1993; Joanning, 1982).

부부적응에는 자기존중감 또한 유의미한 영향을 가진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으나 부부의 의사소통, 자기존중감, 부부적응의 세 요인 사이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존중감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자기존중감, 의사소통 및 부부적응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 연구가 이루어진 서구문명과 다른 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 부부의 자기존중감, 의사소통과 부부적응의 상호 관련성을 조사하고 부부의 자기존중감이 어떤 역할을 통하여 의사소통과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 쌍을 대상으로 부부의 자기존중감, 의사소통 및 부부적응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부부의 의사소통과 자기존중감이 독립적으로 부부적응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자기존중감이 의사소통과 상호작용하여 부부적응에 영향을 주는가를 조사한 결과, 자기존중감과 부부적응, 자기존중감과 의사소통, 의사소통과 부부적응 사이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별개로 취급되어 온 의사소통과 부부적응, 자기존중감과 부부적응의 관련성을 확인하였으며 자기존중감, 의사소통, 부부적응 각각은 상호 일관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부부적응을 연구할 때 자기존중감이나 의사소통은 제외할 수 없는 요인이라는 것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겠다. 그리고 이는 부부적응을 연구할 때 자기존중감이나 의사소통은 제외할 수 없는 요인이라고 지적

한 Carter(1980)의 결론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남편의 자기존중감은 남편 자신의 부부적응과 아내의 부부적응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아내의 자기존중감도 아내 자신의 부부적응과 남편의 부부적응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존중감이 부부적응의 중요한 요인이며 부부의 의사소통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Satir(1967)의 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기존중감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가지 논쟁점은 자기존중감이 어떠한 역할을 통하여 심리적인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관심이다. 자기존중감이 생활스트레스(사건)와 상호작용하여 우울을 야기한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보고 되었으며 최근의 연구자들은 자기존중감이 중재나 매개효과를 통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검증하는데 관심을 기울였다(최미래, 2000; Aspinwell & Taylor, 1992; Brown & Dutton, 1995; Whisman & Kwon, 1993). 자기존중감은 스트레스와 우울 사이를 중재하여 자기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보다 부정적인 사건으로부터 더 심한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Brown & Dutton, 1995). 그러므로 높은 자기존중감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시키고 더 신속한 회복력을 제공함으로써 우울로부터 사람을 보호할 수 있다(Aspinwell & Taylor, 1992; Emomons & Diener, 1985; Tayer & Brown, 1988). 이러한 자기존중감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자기존중감이 기분상태 같은 심리적인 기능에 대한 스트레스의 영향을 중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기존중감은 인지된 스트레스와 스트레스에 대한 기대 사이의 관계를 중재하거나 인지된 스트레스와 성공에 대한 기대감 사이에 매개변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Aspinwall과 Taylor

(1992)는 대학생활에 적응과 성취에 대한 자기존중감의 효과는 자기존중감의 성공에 대한 동기부여 효과에 의하여 매개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높은 자기존중감은 강한 동기를 부여하여 대학환경에 더 나은 적응과 성취를 이루도록 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볼 때 자기존중감은 결혼생활 및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와 우울 사이를 중재나 매개작용을 통하여 보다 만족스러운 부부적응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부부적응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가정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의사소통과 부부적응 사이에 자기존중감의 매개효과가 지지됨으로서 부부적응 과정에 대한 자기존중감의 중요성을 입증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부적응 과정에 대한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의사소통은 자기존중감을 증가시키고, 높아진 자기존중감은 부부적응을 증가시키는 매개 경로가 있음이 확인된 바와 같이 자기존중감은 의사소통이 부부적응에 더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도와 주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었다. 자기존중감의 매개경로의 확인은 의사소통의 수준이 낮다 하더라도 자기존중감이 낮아지지 않는다면 부부갈등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자기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은 부부의 의사소통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자기존중감이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자기존중감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의사소통의 효과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의사소통과 자기존중감이 부부적응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나 의사소통과 자기존중감의 상호작용은 부부적응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사소통과 부부적응 사이에 자기존중감의 중재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을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과 자

기존중감이 부부적응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기존중감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의사소통보다는 낮게 나타났지만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부부적응 효과를 얻기 위하여 부부의 의사소통과 자기존중감 모두를 향상시키는 부부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이론과 적합한 기법들의 개발이 요구된다 하겠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방법에서 자기보고 형식의 설문조사방법을 횡단적으로 실시하여 설문연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의 정확성과 신뢰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과 피험자의 사회적 선호도에 따른 반응가능성과 솔직하지 않거나 부주의한 반응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추후에 관찰 및 면접법을 병행하여 조사한다면 각 척도의 신뢰성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서울특별시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조사된 결과를 사회, 경제, 문화적 환경이 다른 지역의 부부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양한 계층과 다른 지역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부를 쌍으로 하여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횡단적인 절차를 사용하여 의사소통, 자기존중감, 부부적응 간의 동시적인 관계만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정확한 인과관계를 설정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횡단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의사소통의 수준이 변화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변화된 자기존중감이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매개효과를 보다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종단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제한점이 있으나 본 연구는 이제까지 별개로 취급되어온 부부의 의사소통과 자기존중감이 서로 관련되어 아내와 남편의 부부적응에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밝혔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리고 부분적이지만 의사소통 측면과 자기존중감 측면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부부적응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부부의 적응을 향상시키려면 부부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부부적응이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부부관계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에 의사소통 향상과 함께 부부적응에 중요한 요소인 자기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성장적인 요소를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시사된다.

## 참고문헌

- 권정혜, 채규만 (2000). 부부적응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207-218.
- 유승하 (1996). 부부의 갈등해소양식 변화에 미치는 의사소통기술훈련과 신념변화 훈련의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민식, 김중술 (1996). 부부적응척도(DAS)의 표준화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5, 129-140.
- 이영호 (1993). 귀인양식, 생활사건, 사건귀인 및 무망감과 우울의 관계: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한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석희 (1992).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학습프로그램이 부부의사소통과 부부적응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제석봉 (1996). 가족 및 부부의 심리와 성장. 대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출판부.
- 조선경 (1990). 의사소통을 통한 부부관계 강화 프로그램.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미례 (2000).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와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통계청 (1999). 인구동태통계연보. 서울.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attle, J. (1992). *Culture-Free Self-Esteem Inventories*. Austin Texas: PRO-ED.
- Baumeister, R. F. (1998). The self.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pp. 680-74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ray, J. H. & Jouriles, E. N. (1995). Treatment of marital conflict and prevention of divorc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1, 461-474.
- Bruder, A. H. (1972). *Effects of marriage enrichment program upon marital communication and adjustment*. Doctoral dissertation, Purdue University.
- Carter, W. L. (1980). *The relationships among self-esteem, marital communication and marital adjustment*. Doctoral dissertation. North Texas State University.
- Coleman, J. C. (1984). *Intimate relationships, marriage, and family*. Indianapolis: The Bobbs-Merrill.
- Dillon, J. D. (1975). *Marital communication and its*

- relation to self-esteem*. Doctoral dissertation. United States International University.
- Giffin, K. & Patton, B. R. (1976). *Fundamentals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New York: Harper & Row.
- Glick, I. D. & Kessler, D. (1974). *Marital and family therapy*. New York: Green and Stratton.
- Gordon, K. C., Baucom, D. H., Epstein, N., Burnett, C. K., & Rankin, L. A. (1999). The interaction between marital standards and communication pattern: how does it contribute to marital adjustment?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5, 211-223.
- Gurman, A. S. & Kriskern, D. P. (1977). Enrichment research on marital enrichment program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Counseling*, 3, 3-11.
- Halford, W. K., Sanders, M. R., & Behrens, B. C. (1993). A comparison of the generalization of behavioral marital therapy and enhanced behavioral marital therapy.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51-60.
- Joanning, H. (1982). The long-term effects of the couple communication program.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8, 463-468.
- Jourad, S. M. (1968). *Disclosing man to himself*.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 Latham, N. V. (1979). *The effect on marital adjustment of teaching basic marital communication in a group using videotape feedback*. Doctoral dissertation, North Texas State University, Denton, Texas.
- Miller, S., Nunnally, E. W., Wackman, D. B., & Ferris, R. H. (1976). *Couple workbook*. Minneapolis, Minnesota: Interpersonal Communication Programs, Inc.
- Nadeau, K. G. (1976). *An examination of some effects of the marital enrichment group*.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Florida, Gainesville, Florida.
- Navran, L. (1967). Communication and adjustment in marriage. *The Family Process*, 6, 173-184.
- Rappaport, A. F. (1976). Conjugal Relationship Enhancement Program. In D. Olson (Ed.), *Treating relationships*. Lake Mills, Iowa: Graphic Publishing.
- Satir, V. (1967). *Conjoint family therapy*. Palo Alto, California: Science and Behavior Books.
- Spanier, G. B. & Cole, C. L. (1976). Toward clarification and investigation of marital adjus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of the Family*, 6, 121-146.
- Wampler, K. S. (1982). The effectiveness of the Minnesota Couples Communication Program: a review of research.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8, 345-355.

원 고 접 수 일 : 2002. 6. 25

수정원고접수일 : 2002. 11. 25

게재결정일 : 2002. 12. 3

## **The Mediating Effects of Couples'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uple Communication and Marital Adjustment**

**Eui-Hee Mo**

**Department of Education  
Hanyang University**

**Jae-Hwan Kim**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Hanyang University**

In this study, to determine the correlations among the three factors of self-esteem, couple communication and marital adjustment of Korean couples who live in different culture from western countries, and elucidate the role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uple communication and marital adjustment. A total of 248 married couples were surveyed their level of self-esteem, couple communication, and marital adjustmen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at the .01 level of significance between couples' self-esteem and marital adjustment, between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and between communication and marital adjustment. And husband's and wife's self-esteem affected their own and their spouses' marital adjustment independently. In husband and wif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between couple communication and marital adjustment was shown. Although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was not greater than that of couple communication, self-esteem also influenced on the marital adjustment significantly. An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between couple communication and marital adjustment was greater in wife than husb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each of self-esteem, couple communication and marital adjustment are consistently related, and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of husband and wife affect independently and interactively on marital adjustment. When marital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enhancing marital adjustment is being developed, the intervention strategy for self-esteem should be included in the program along with the skills for couple communication.

*Key Words : self-esteem, couple communication, marital adjustment, mediating effect*

부 록

피험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적사항	분 류	남 편(%)	아 내(%)
성 별		248명(50%)	248명(50%)
연 령	평 균	41.44(8.51)	38.36(7.91)
	최저와 최고	27~65세	23~63세
교육수준	초 등 졸	5명( 2.0%)	10명( 4.0%)
	중 등 졸	8명( 3.2%)	11명( 4.4%)
	고 등 졸	67명(27.0%)	106명(42.7%)
	대 등 졸	138명(55.6%)	101명(40.7%)
	대 학 원	30명(12.1%)	20명( 8.1%)
	합 계	248명(100%)	248명(100%)
배우자의 선택과정	전적으로 부모 결정	1명( .4%)	4명( 1.6%)
	부모결정 후 본인 동의	16명( 6.5%)	21명( 8.5%)
	본인결정 후 부모 동의	148명(59.7%)	155명(62.5%)
	전적으로 본인 결정	81명(32.7%)	65명(26.2%)
	기 타	2명( .8%)	3명( 1.2%)
	합 계	248명(100%)	248명(100%)
월 평 균 수 입	100만원 미만	10명( 4.0%)	46명(18.5%)
	100~200만원	95명(38.3%)	70명(28.2%)
	200~300만원	76명(30.7%)	17명( 6.9%)
	300~500만원	48명(19.4%)	10명( 4.0%)
	500만원 이상	12명( 4.8%)	1명( .4%)
	수입 없음	7명( 2.8%)	104명(42.0%)
	합 계	248명(100%)	248명(100%)
직 업	무 직	4명( 1.6%)	10명( 4.0%)
	시간제 부업	-	11명( 4.4%)
	생산노무직	17명( 6.9%)	14명( 5.7%)
	서비스, 판매직	35명(14.1%)	27명(10.9%)
	사 무 직	60명(24.2%)	36명(14.5%)
	전문관리직	61명(24.6%)	22명( 8.9%)
	행정관리직	22명( 8.9%)	12명( 4.8%)
	주 부	1명( .4%)	91명(36.7%)
	기 타	48명(19.4%)	25명(10.1%)
	합 계	248명(100%)	248명(100%)
종 교	기 독 교	71명(28.6%)	87명(35.1%)
	천 주 교	29명(11.7%)	40명(16.1%)
	불 교	33명(13.3%)	47명(19.0%)
	무 교	112명(45.2%)	71명(28.6%)
	기 타	3명( 2.2%)	3명( 2.2%)
	합 계	248명(100%)	248명(100%)
가 정 내 주 도 권	남편 주도	61명(24.6%)	61명(24.6%)
	평 등	162명(65.3%)	162명(65.3%)
	아내 주도	25명(10.1%)	21명( 8.5%)
	합 계	248명(100%)	248명(100%)